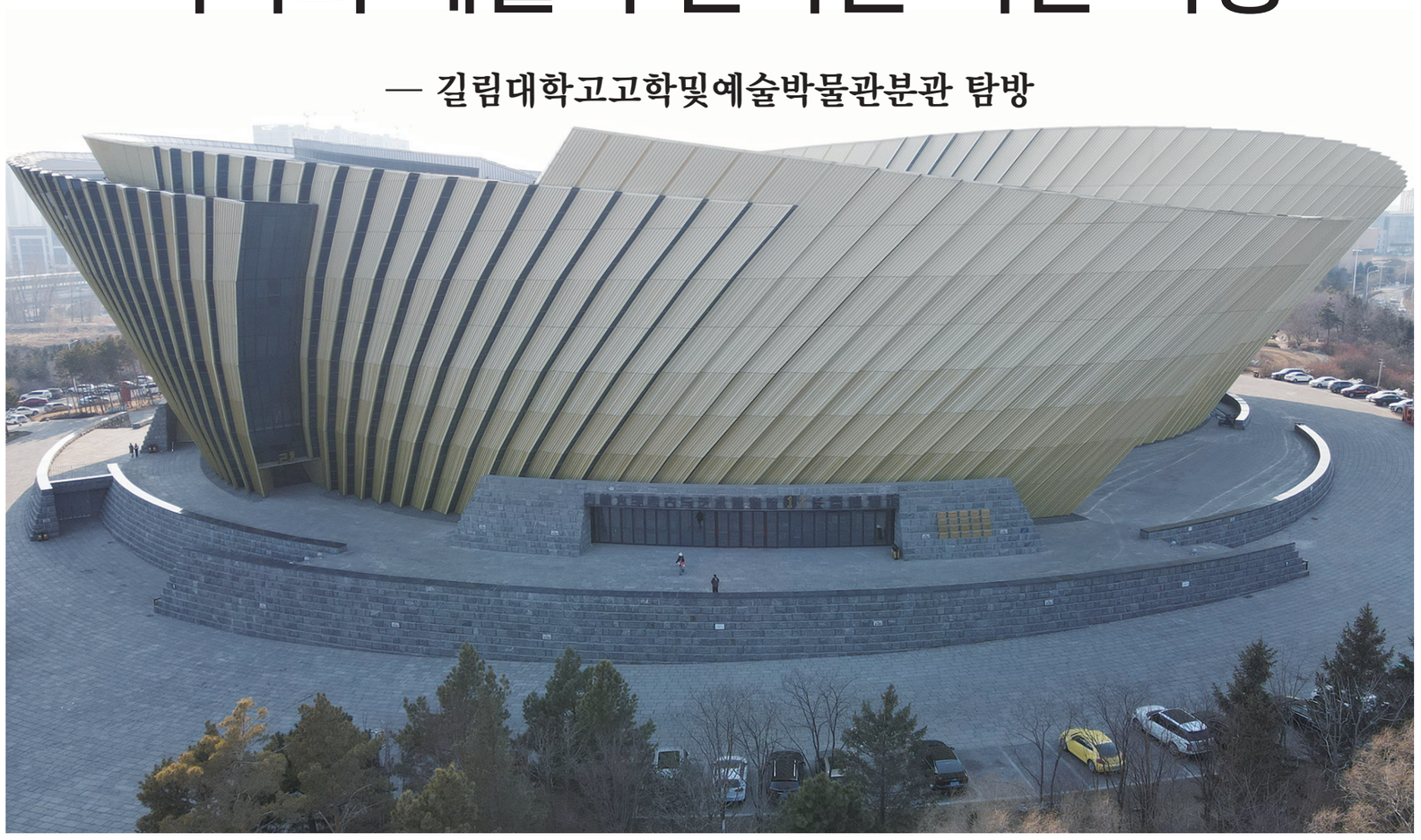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책임편집 : 손맹번 디자인 : 김령 길림신문

력사와 예술이 만나는 시간 려행

— 길림대학고고학및예술박물관분관 탐방



장춘시 문화 랜드마크인 길림대학고고학및예술박물관분관은 독특한 매력으로 수많은 력사 예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장춘도시계획관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력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산증인이기도 하다. 설립 이후, 박물관은 길림대학의 깊은 학문적 전통을 바탕으로 고고학적 발견과 예술적 명품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왔다.

박물관에 소장된 400여점의 문물마다에는 깊은 력사의 흔적이 서려있다. 이중 고대 도자기부터 정교한 옥기, 고풍스러운 청동기, 그리고 화려한 서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은 중화 문명의 방대함과 깊이를 생생히 전달한다. 이 유물들은 박물관의 다섯가지 주요 테마 전시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되살아나며 관람객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력사의 숨결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길림대학고고학및예술박물관분관에 들어서면 시공간을 초월해 력사와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밀려온다. 이곳은 문화의 전당이자 예술의 락원이다. 이곳에서 시간을 뛰여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과거의 빛나는 흔적들을 눈앞에서 만나보자.

/ 손맹번 류향휘 기자

명청시기 명품 도자기 전시

이 전시는 '춘생(春生)', '춘난(春暖)', '춘연(春妍)' 세 부분으로 구성, 각각 청화자기, 단색유약자기(单色釉瓷), 채색자기 정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서예, 고시, 종이공예(纸雕) 및 고전음악의 조화를 통해 화려한 색감의 도자기와 깊은 내용의 문화적 콘텐츠로 '봄날의 화창함과 아름다운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중화 문명의 유구한 력사를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 방문객이 전시된 도자기를 관람하고 있다.

◀ 사람들은 도자기를 통해 그 시대의 이야기를 엿듣기도 한다.

중국 전통 기술과 예술 전시

▲ 많은 이야기를 담은 '당백유쌍룡병반구호(唐白釉双龙柄盘口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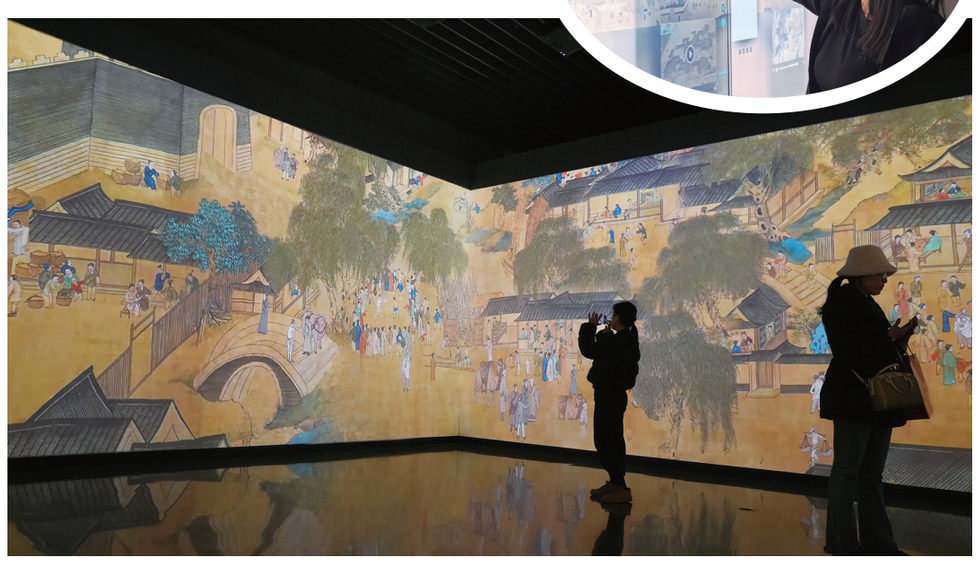
이 전시는 오색(五色), 기예(技艺)와 장식 예술을 주제로 도자기, 옥기, 청동기, 칠기 등 140여점의 문물을 엄선하고 이를 '색(色), 상(相), 기(技), 예(艺)'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또한 영화 대사, 무협 영상과 문물 이야기를 융합했다.

소장 정품 서화 전시

원나라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서법,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풍속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관장 서화를 엄선하여 전시했다. 안개로 둘러싸인 산림 풍경은 청아한 대나무와 돌의 정취를, 정감어린 화조는 생동감 넘치는 초충의 미를, 번잡함 속 시장의 활기는 초월적인 고사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

▶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문물을 살펴보고 있는 관람객

▼ 동적인 청명상하도(动态清明上河图)가 관람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길림대학 동창 회화 작품 전시

이 전시는 28점의 작품을 엄선했는데 산수, 림목, 촌락, 인물, 동물 및 고적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전시를 통해 자연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인문적 사고가 어우러진 조화를 선보이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예술과 마음이 하나로 융합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 전시 작품 '희훈(戏魂)'

▼ 전시회에서는 관람객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유화 액자를 준비했다.

산해경 청동기 전시

이 전시는 식기를 비롯해 주기, 병기, 악기, 차마기, 실용기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180여점의 청동기 소장품을 엄선해 선보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해경(山海经)》의 내용을 인용하며 상나라와 주나라 시기에 례기(礼器)로 사용되던 청동기가 진나라와 한나라에 이르러 일상 용기로 변화되는 력사적 과정을 생생히 조명한다.

▲ 관람객이 첨단 교류 모니터를 통해 전시품에 대한 소개를 보고 있다.

主管 / 主办：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吉林朝鲜文报社 印刷：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长春市绿园区普阳街 2366 号 邮编：130011 传真：87627100 广告许可证：2200004000046 定价：180 元 / 年
编务办：87619812 全媒体中心：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87627091 延边记者站：（0433）2518860 吉林记者站：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13604447151 白山记者站：15143355283 首尔分社：+82（02）7868089